

완주 이서 고구마 첫 수출

홍콩 파킨샵에서 판매 안정적 농가 소득 기대

황토 고구마로 유명한 완주군 이서 고구마가 첫 수출길에 올랐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월~9월의 삼례 멜론에 이어 고구마 8.1톤(900박스)을 홍콩에 수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이서 고구마 작목반(반장 두용철)과 수출업체인 케이아트, 그리고 평소 농산물 수출 판로 개척에 관심이 많았던 박성일 완주군수의 노력으로 성사됐다. 12월에도 16톤(1,800박스)의 수출 주문을 더 받아 놓은 상태이다. 이서 고구마는 황토흙에서 재배하므로 미생물과 효소들의 영향으로 일반 고구마보다 빛깔이 더 노랗고 당도가 높으며, 속이 짙 차이는 것이 특징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명품 고구마로 인정받고 있다.



완주군 이서 고구마 8.1톤(900박스)을 홍콩에 수출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군은 이번엔 수출되는 고구마를 활용하여 홍콩의 대형 유통 매장인 파킨샵에서 판매된다. 완주군은 농산물 수입 판매 업체인 쉬프그룹과 함께 현장 판촉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완주 농산물의 수출품목과 수출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 8월과 9월

에 멜론 30톤 홍콩 수출로 얻는 직접 소득도 있지만, 국내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성과도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우리 농특산물 수출 될 수 있도록 홍콩의 농산물 유통 상황을 파악하고, 재배단계부터 홍콩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준비하는 맞춤형 수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클린하우스 50곳 추가 설치

진안군은 쓰레기 3NO운동의 성공적 정착과 주민 의식전환 유도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클린하우스 50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군은 2단계 쓰레기 3NO운동 정착을 위해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13개 마을을 선정하고 재활용정거장(클린하우스)을 설치한 결과 해당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각고의 노력 끝에 행정자

대책을 마련해 관련 예산을 내년에 추가 확보키로 했다. 특히 307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6급 이상 공무원의 책임마을 담당제를 운영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마을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인식전환도 같이 병행해 가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민선6기 군정방침 첫 번째가 아름다운 청정환경으로 청정 진안환경을 지켜내지 못하면 진안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청정환경 지키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의정자문회의 개최

행정사무감사 등 정책 제언 역할 특목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는 9일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수집과 자문을 구하기 위한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의회 의원들과 공감하는 한편 정책적인 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항로 의정자문위원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의정자문회의는 군의회 하반기 일정 중 가장 큰 업무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한 의원들의 고견을 듣는 자

리"라며 "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백남훈위원과 유해선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다문화청소년 'one day 진로캠프' 품·재능 응원 지지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희순)는 지역의 다문화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품을 찾는 진로여행 one day 진로캠프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완주군 다문화청소년 one day 진로캠프는 장기 품 로드맵과 포트폴리오 제작, 가족과 함께하는 파티쉐 체험(케익만들기), 대학생 멘토링 생생토크쇼를 통한 선배들의 경험담과 화과 이야기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진로 발표회를 통해 미래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으며 부모님들은 자녀의 꿈과 재능에 대해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 유희순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one day 진로캠프'를 실시했다.

청소년의 진로지도와 심리상담, 직업 능력과 사회응용력 향상을 통한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

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경찰, 어르신 단풍관광 교통안전교육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장수군 노인복지회관 회원 약 40여명이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 내장산으로 여행을 가는 것과 관련해 노인복지회관에 방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가을 단풍놀이 시즌을 맞이하여 대형버스를 이용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버스의 교통법규

위반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버스 운전자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주요 법규위반사례인 전 좌석안전벨트 미착용, 승차정원 미준수, 대형버스 대열운행 및 지정차로 위반 등에 대해 교육하고 이로인한

교통사고가 발생시 인명피해가 심하게 나타나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알리는 등 운전자 및 승객들에게 경각심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윤중섭 서장은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가을 단풍관광을 떠나는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방법 및 비상탈출장치 사용법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업인과의 만남 'job談'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서정분)는 9일 무주의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프로그램 직업인과의 만남 'job談(잡담)'을 진행했다. 직업인과의 만남 'job談(잡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꿈꾸는 직업인을 만나 직업에 대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 할 수 있도록 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빠르게 성장시키고자 마련해 다양한 직업인들을 만나고, 체험하고,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직업체험 및 탐색과정에서 조항사, 바리스타, 요리사 3개의 직업군으로 진행했다. 조항사는 향기로 행복을 담아내는 직업으로 향수의 종류와 향기의 제조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사용가능한 향기제품을 만들었으며, 커피의 향기를 그려내는 직업인 바리스타 시간엔 커피에 대해 배

우고, 로스팅하는 법과 드립(drip) 커피, 라떼아트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업체험의 마무리로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어 보고, 서로의 요리를 먹으며 품평시간을 통해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요리 사체험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직업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으며, 다른 직업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정분 소장은 "무주군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직업인과의 만남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자아성장과 직업의식을 함양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

무주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이 9일 무주읍 예채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관장 황일태)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일자리 참여자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활동역량을 강화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을 비롯한 일자리 참여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황정수 군수는 "어르신들은 어려웠던 시절을 견디어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 세계태권도성지 무주를 만드신 주역들이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일군 주체"라며 "그 자부심으로 우리 군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끌어주시고 그 능력을 지금 하시는 일에 쏟아 부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 외에도 교육과 문화공연 시간을 함께 공유한 가운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본부 남상현 본부장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특강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우리 SB센터 소속 실버태권도시범단 공연과 무주연예인 공연단의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은 "나이 들어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며 존재감을 찾는다는 게 나를 비롯한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한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포기마다 사랑을 담아요'

무주군 종교계 등 150여명 김장나눔 행사

종교계와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9일 무주읍 반딧불장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자원봉사센터가 주관,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한 것으로 종교를 초월한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를 실현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행복한 겨울나기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 관계자들과 기관사회단체장, 여성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함께 했으며, 이 자리에서 버무려진 1천 3백 포기의 김장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관내 6개 읍면 어려운 이웃 3백 가구(가구당 10kg)에 전달됐다. 김장을 전달받은 주민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항상 김장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겨울나기가 걱정없을 것 같다"며 "김장하시느라 애쓰고 배달하시느라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진옥 군 자원봉사센터장은 "따뜻한 마음들이 함께 한 김장나누기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별블로그

진안군, 상수도 요금인상

진안군은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18.8%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수도 요금 인상은 결정은 지난 2014년 사업 결산결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12%로 생산원가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도내에서 가장 낮은 상수도 요금을 적용 지난해에는 96억의 적자가 발생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 사용자 적정화 목표제를 운영하여 2017년까지 현실화율 90% 이상 달성을 유도하고 있어 요금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구성된 세대는 10톤의 사용량을 감면하고,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 시에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5천원)을 할인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계북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장수군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근)는 9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일원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의 농촌 활성화와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농촌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날 홍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와 정농회, 일출생태조합 등을 방문해 홍동면 마을활력소 이동호 팀장의 '홍동면 주민자치와 지역재생의 흐름'이라는 특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핵심역량 강화에 따른 교육도 마련됐다. 김종근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양프로그램 운영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체가 돼 마을 문제를 기획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확대 '마켓 전북달팽이몰 프로모션'

진안군은 9일 진안고원에서 생산한 청정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 '마켓 전북달팽이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켓 전북달팽이몰 프로모션은 지난 5월 31일 진안군과 진안우체국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MOU 체결 후 진행된 대대적인 온라인 마케팅 프로모션이다. 마켓 식품코너 프리미엄 지역관에서 전라북도 진안군 카테고리 흥산제품, 흑돼지 돈가스, 고구마 말랭이, 구운 계란 등 진안고원 우수 농·특산물 기획전은 11월 말까지 무료배송으로 진행된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고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번 주문한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확보하여 진안고원 우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으로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소방의 날 맞아 소방차 길터주기 퍼레이드 실시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무주·진안·장수 혼합지역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퍼레이드를 실시했다. 이번 퍼레이드는 11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시점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 높이고, 소방차 현장 도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퍼레이드로 무진장소방서 관내 장계119안전센터, 무주119안전센터, 진안119안전센터에서 동시에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방송을 하며 진행되었다. 또한, 장계초등학교 119소년단 "함께해요 화재예방, 행복해요 대한민국" 슬로건으로 화교 앞 교차로에서 화재예방 캠페인과 소화기 Up & Down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관심을 이끌었다. /장수=고관호 기자